

▶ **전일동향**

北 전시상황 선포와 이월 네고물량 둔화로 상승

- 전일 달러-원 환율은 북한의 전시상황 선포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와 이월 네고물량 둔화로 상승했다.
- 달러화는 이날 북한을 둘러싼 지정학적 리스크의 부각으로 전거래일 대비 일정폭 상승하여 출발했다. 여기에 역외 NDF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1,110원대 중반으로 레벨을 높였다. 그러나 수출업체 네고물량이 유입되고, 우리나라 14개월 연속 무역수지 흑자 소식에 고점 인식이 더해지면서 달러화 상단은 막혔다. 이에따라 이날 달러화는 전일 대비 3.7원 오른 1,114.8원에 거래를 마쳤다.
- 코스피는 꾸준히 출회하는 매도물량에 부담을 느끼며 8.9포인트 내린 1,995.99에 장을 마감했다.

전일 달러 변동	시가	고가	저가	종가	평균환율
	1114.00	1117.00	1112.10	1114.80	1115.50

전일 엔화 변동	시가	고가	저가	종가
	1179.53	1196.39	1176.66	1195.64

▶ **금일 전망**

이월 네고물량 둔화로 1,110원대 초반으로 하락 후 지지예상

- 금일 달러-원 환율은 이월 네고물량 둔화로 1,110원대 초반으로 하락 후 북한 리스크와 저점 매수세 유입의 영향으로 지지력이 예상된다.
- 수급상으로 이월 네고물량이 둔화되면서 달러화는 하락압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북한의 군사적 도발 가능성이 있는 만큼 달러화 지지력은 유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오전중 호주 제조업 지수 등 경제지표 발표도 이어지는데, 장중 달러화 모멘텀이 약할 경우 호주 달러 흐름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북한 리스크로 저점 결제수요와 역외 NDF 매수가 하단을 떠받칠 수 있는 만큼 달러화가 하락폭을 키우기도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이날 달러-원 환율은 장초반 하락 후 지지력이 예상된다.
- 뉴욕증시는 건설지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ISM제조업지수 부진 등의 영향으로 하락했다.

금일 달러/원 예상 범위	1108.00 ~ 1120.00 원
------------------	---------------------

▶ **체크포인트**

■ 전일 외국인 주식 매매 동향 : -572.6억원

■ 뉴욕 차액결제선물환율(NDF) : 전일 서울외환시장 현물환 대비 1.00원하락

■ 美 다우지수 : 14572.85, -5.69p(-0.04%)

■ 전일 현물환 거래량(종합) : 66.195 억달러

■ 전일 외국인 채권매매 동향 : -6075 억원

주의사항

※본 리포트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외부기관으로부터 획득한 자료를 인용한 것입니다.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